



#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롱기노스 백인대장 순교자

## 루가 제4주일

제7차 세계공의회 참석 교부

성 카르포스, 성 빠빌로스 순교자

제8조, 조과복음 6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A 218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 교부들 찬양송 / 85. B 178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62

· 사도경: 디도 3, 8-15 / 봉독서 539

· 복음경: 루가 8, 5-15 / 124. B 66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롱기노스 백인대장 순교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그를 하느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두고 감시한 백인대장과 군인들은 지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직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바로 “이 사람이 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마르코 15:39)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백인대장의 이름은 롱기노스였고, 우리 교회는 롱기노스 백인대장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10월 16일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롱기노스 백인대장은 주님의 부활 후 율법 학자들이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 증언하라고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였고, 군 대장의 직위를 버리고 순교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는 강도가, 죽은 후에는 백인대장이 각각 처음으로 하느님을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소문을 들어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그분을 보여주고, 그분의 이름을 들어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그분을 깨닫게 하여 주리라.”(로마서 15:21)

## 목마르게 찾는 주님



성 실루아노스 아토스 산의 수도자는 어릴 때부터 수도 생활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커가면서 이런 생각은 점점 사라졌고 세속적인 생활에 익숙해지며 하느님과 멀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성모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지나간 자신의 삶을 통렬히 성찰합니다. 그 후, 아토스 성산에서 수도사로 입문을 하지만 세속으로 돌아가고픈 유혹에 수시로 시달렸습니다. 영적 스승의 권유로 시작한 '예수 기도'를 통해 비로소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사악한 상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정진을 거듭한 끝에 성인의 반열까지 오른 것입니다. 굴곡진 삶을 극복한 성인의 모습은 오늘날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됩니다.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성인의 고백이 담긴 글 중에서 '목마르게 찾는 주님'이라는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내 영혼, 주님 찾아 목이 마릅니다.

눈물로 주님 찾아 헤맵니다.

주여, 제가 어찌 당신을 찾지 않으리  
까?

당신께서 먼저 저를 찾아 주셨고

성령의 감미로움을 맛보게 하셨으니

내 영혼이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주여, 당신은 보십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당신께서 가까이 끌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도, 찾지도 않았

을 것이 옵니다.

내 영혼, 하느님을 갈망합니다.

눈물로 하느님을 찾아 헤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당신은 보십니다.

제가 얼마나 낮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러니 이 죄인에게도 당신의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 당신 찾음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 낮이 있는 동안 일하라

안토니 M. 코냐리스 신부

한 늙은 왕이 자기 왕국의 먼 지방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와 함께 떠났다. 반역자들을 제압하고 나서 왕은 성문으로 통하는 큰 길 한 가운데에 촛대를 세웠다. 그리고는 거기에 불을 붙이고난 뒤 공포하기를, 자신을 거역해 반란에 참여한 자 중에 누구라도 촛불이 켜져 있는 동안 행복하고 충성의 서약을 하는 사람은 처형을 면할 것이라고 하였다. 왕은 반역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비는 촛불이 켜져 있는 동안으로 한정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초가 켜져 있는 동안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을 밝힌 채 타오르는 초는 곧 우리의 생명이다. 그 불은 영원히 타지는 않을 것이다. 도리어 촛불이 켜져 있는 동안 우리는 하느님의 용서하심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촛불이 다해서 꺼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가서 하느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늦고 만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요한 9:4)

▶ 아타나시아



## 소 식

### 대교구

#### ■ 한국정교회 24인 수호 성인 축일

지난 10월 3일(목)에 한국정교회 24인 수호 성인 축일을 맞이하여 가평의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축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소티리오스 대주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 로만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크리스토포로스 신부, 요한 박인곤 보제가 함께 축일 조과에 이어서 성찬예배를 공동 집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성당에서 많은 신자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성찬예배 후에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사랑의 오찬을 나누었고, 간단한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모든 신자를 맞이해주시고, 축일 예배와 오찬을 준비해주신 소티리오스 대주교와 아가티 수녀께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주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 가을 음식 축제

오는 10월 20일 주일 성찬예배 후 ‘먼 나라 이웃 나라 음식 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다양하고 맛있는 대표 음식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 슬라브 교인 수련회

오는 10월 25일(금)~27일(일)까지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슬라브 교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예배와 기도, 식사 그리고 영적 대화를 나누는 시간과 재밌는 오락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 부인회 야유회

오는 10월 15일(화) 부인회는 인천 소래포구로 야유회를 갈 예정입니다.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님과 함께 식사와 친교를 나누며 유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 정기 바자회

11월 3일(일)에 정기 바자회가 열립니다. 수익금은 자치구에서 행사하는 어려운 이웃 돕기에 협조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해주셔서 뜻깊은 행사를 보낼 수 있도록 교인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간 예식

. 10월 18일(금) 성 루가 복음사도 축일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

